

한가위, 풍성함을 나누어 더욱 풍요로워지는...



사각의 깊은 방에서 명절을 보낼 재소자 위로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 403장 3절) 수화 찬송이 울려(?) 퍼진다.

지난 12일, 안양 교도소 수감되어 있는 22명의 청각 장애인 재소자들을 만났다. 주님의교회 장애인부에서는 한 달에 두 번, 이들을 위한 면회를 가는데 그날은 추석을 겸한 특별한 잔치가 있었다. 4종류의 송편, 바나나, 포도, 일회용 커피, 초콜릿, 음료수 등등.. 1시간 반의 짧은 면회 시간이지만 음식만큼은 어느 한가위 못지않게 풍성하다. 말이 없는 만남, 손짓의 만남이 끊임 없이 이어졌다.

소매치기로 수감된 23세 애먼 얼굴의 재소자도 보인다. 초범으로 12월에 출소하는데 그 버릇을 고치기가 쉽지 않아 취직이 어려울 것 같다 한다. 수화를 하는 그 아름다운 손으로 생산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오는 12월은 또 다른 4명의 재소자들에게 특별한 달이 될 것이다.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찾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면회시간을 마치고 남은 음식을 옷 속에 담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사각의 깊은 방에서 추석을 보낼 그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추석,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풍성함을 나누어 더욱 풍요로워지는 참다운 명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신형섭 기자

로템나무



교회를 위한 기도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의 역사가 주님의교회에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프칸 인질사태로 말미암아 기독교계 역시 기독교 복음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도전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사역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하게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때맞춰 주님의교회로 보내 주셨습니다. 박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교회에 주시려는 시대적 메세지와 사명과 사역의 방향성을 성도들이 잘 읽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척이나 더웠던 올해 여름 날씨! 더위를 구실삼아 우리의 신앙생활의 궤도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산과 바다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교회로 향하는 삶의 구심점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해 더욱 ‘하나님의 사람’, ‘온전함’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함은 이 세상의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함이오니,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4일 4부 예배 박호길 장로 기도문 중에서

학부모 교사 기도모임 (PTP) 2학기 개강

2007-가을 학부모 교사 기도모임(PTP-Parent Teacher Prayer)이 9월 8일, 박원호 담임목사의 격려사와 함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PTP의 주강사인 정요섭 교육목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와 교사들을 통해 이 땅의 다음세대들을 더욱 더 든든히 세워 가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며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 흘러가는 죽은 나무토막이 아닌,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 있는 물고기처럼, 이 시대의 풍조와 거짓된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우리의 자녀들을 꿈꾸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주제 : 내 삶을 이끄는 능력, 기도
일시 : 2007년 9/8-12/8
매주 토요일
시간 : 오전 10:00 - 11:20
장소 : 1층 소예배실

나의신앙이야기_신영숙

3면

군선교사역팀 사역보고

4면



213호 선교특집 기사중 타이틀 사진설명을 정정합니다. 이 사진은 아프리카니스탄에 피랍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위그루 선교팀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신앙Ⅲ

“하나님의 사람”

잠언1:7-9, 디모데후서3:16-17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가정, 직장, 세상에서도 당당히 선포하며 확신 있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졸업한 중고등학교는 기독교학교였습니다. 그 때 학교의 교훈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6년간 학교를 다녔어도 이 말씀의 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깊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오늘 시대에 이렇게 필요한 말씀이 될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의 근본

오늘날은 지식과 정보의 시대입니다. 지식이 곧 힘이고 재산입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가운데 ‘노하우’ (know how)가 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지식을 찾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은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지식을 가지려 하는지를 물으면서 동시에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하고 그 위에 지식을 추구해야만, 우리의 지식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식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과 소망을 찾고, 그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결코 정복이 지식을 얻는 동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자연도, 우주도, 건강도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식은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에는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축복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동기와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식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할 때 지식을 추구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노하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지식의 ‘know why’를 찾아야 합니다. 지식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디모데 후서는 우리 각자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 신뢰와 영광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규정짓는 근거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과 말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그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과 과학의 실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란 것을 확신케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이유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과학적인 증거와 이성적인 논리도 없이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며 거기에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세상은 또 질문합니다. 하지만 세상도 인생의 모든 진리가 이성이나 과학으로 발견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 사람의 본질, 역사의 의미, 하나님의 본성은 계시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성과 과학이 이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개인적인 묵상의 도구로 여길 뿐 직장과 사회에 가서 선포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닙니다. 또 다른 안타까움은 과학 앞에서의 무력감입니다. 이제 교인들이나 목회자가 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공격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아니 오히려 과학에 아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과학처럼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다’라고 말하며 기적도, 동정녀 탄생도, 예수의 부활도, 종말도 포기하고 마치 이제는 과학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과학의 것입니까? 누가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과학입니까?

온전한 말씀

세상은 우리를 향해 ‘타당한 이성도, 합리성도 없고, 권위나 전통에 의존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며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세상을 향해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말도 다른 과학자가 인정해 주어야 인정받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과학이라는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전통도, 권위도 없는 것처럼 세상을 속입니까? 그런 거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믿음,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믿음 아닙니까?’

오늘도 이 땅에는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음악과 미술, 그것은 이성에 의존하지 않고 상상력과 직관을 통해 얻어집니다.

성경이 비합리적이라고 결코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만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모순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 그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며 생명의 고귀함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 어디에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의 종말이 없다 말합니까? 그 어디에 예수님을 부인한 곳이 있습니까? 성경은 무려 1,700여 페이지가 되는 책이지만 결코 그 안에서 모순됨이 없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갈등도 없습니다. 수 천 년을 내려오면서도 일관성 있게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탁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가정, 직장, 세상에서도 당당히 선포하며 확신 있게 살아야 합니다. 시대가 다원화 될수록 이들은 더욱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원화가 가져다 주는 상대주의로 인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격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보여 달라는 절규 섞인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더 말씀에 온전히 헌신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가 세상을 구할 길입니다.



행복한

구역모임

8교구 8구역의 구역 예배

삶의 이야기들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2007년 9월 14일 비 내리는 금요일 밤 8교구 8구역은 2학기 두 번째 구역모임을 정재윤/김분자 가정에서 가졌다. 집들도 멀고 퇴근길 도로가 너무나 혼잡해서 제 시간에 모두 모이지는 못했지만 구역장이 미리 준비한 찬양모임집에 따라 함께 찬양하며 믿음의 가족들을 기다렸다.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8시 30분이 조금 지나서 구역장 배익환 집사의 기도와 인도로 교제에 따라 공부가 시작되었다. 함께 구역의 요나서를 읽어가며 당시 요나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선지자 "요나"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헤아려 보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리라 다짐도 해 보았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에 직면해 있는 동안 회개하고 부르짖고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했지만 막상 새 생명을 얻고 난 후 하나님께 성내고 불편해했습니다. 요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갖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픈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청취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해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김현령 목사는 구역 식구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 이어서 구역식

구간의 여러 가지 기도제목을 놓고

잠시 통성기도를 한 후에 축도로 구역모임을 마쳤다.

그러나 헤어지기 너무 아쉬웠다. 간단한 다과와 못 다한 얘기들로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즐거워하다가 11시가 지나서야 마지못해 일어섰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정재윤(8-8)



나/의신/양/이/야/기

Recalculating... 네비 언니, 샘 오빠

딱 일 년만이다. 공부하겠다고 멀리 미국 간 딸을 만나러 남편과 나는 이국땅을 향해 떠났다. 비행기에서 내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만난 렌트카는 막 샤워를 끝낸 듯, 물을 뚝뚝 흘리며 우리 앞에서 있었다. 심호흡을 하며 차 문을 닫았다. 출발한 지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Recalculating"... 차에 달린 네비게이션에서는 난생 처음 들어 보는 듯한 말이 반복되어 흘러 나왔다. 뭔가 잘못 되었다고 알려 주는 것 같았다.

서울에서 부터 웬지 무겁던 마음은 바로 이런 일을 예감한 탓이 아닐까? 상황의 엉크러짐과 달리 알려 주는 말투는 너무도 정중하고 차분했다. 이제 이 목소리의 도움이 없이는 앞으로 많은 혼돈이 있을 것을 알아 채 남편과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언니'라고 부르며 따르기로 했다. '네비 언니!'

차 안은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밖의 세계와는 다른 공기의 흐름 속에 어둠을 뚫고 낮선 길을 질주했다. '그녀'의 충실함에 우리의 성실함이 덧 입혀져 새벽 3시에 목적지에서 허리를 펴니 그 감격과 대견함이란... 게다가 창밖에서 손 흔드는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니..

이렇게 시작한 '네비언니'와 만남은 아침 햇

살에 인사해서 날짜의 경계선 까지 계속되었다. 때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강행군이었지만 '그녀'는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여전히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은 소임을 다했다. 때로 우리의 부주의함이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에도 '그녀'의 충실함은 어김없이 목표지점을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였고, 마치 보물찾기와 같이 숨겨진 창조의 비밀로 안내 하였다.

새벽안개를 헤치며 일출을 보러 가는 길목에서 만난 사슴과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나무들, 아침 햇살이 부서지는 강가에서 만난 가재 떼의 이동 모습, 잘못 들어간 길 안쪽에 숨겨져 있던 바다와 같은 호수의 해안선, 기우는 햇살에 무심히 피어 있는 들꽃들, 온갖 색의 향연을 펼치는 하늘을 이고 자맥질하는 오리들, 캄캄한 산 속을 달릴 때 우리의 외로움을 아는 듯 떨어져 내리던 유성, 그 만물 안에 나는 터질듯 한 침묵으로 마주 서 있었다.

현기증 나게 솟아 오른 침탑과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교한 장식, 수 만 개의 별로 덮힌 천장 아래서 십자가상의 주님은 외로워 보였다. 내 겹옷을 벗어 덮어 드리고 싶을 만큼... 파이프 오르간 소리로 그 안을 채워 금박을 입힌 벽들이 진동할

지라도 사람들의 손자국으로 벗겨진 주님의 발등은 하얗게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도 기적을 구하며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의 표정 없는 얼굴을 향한 주님의 깊은 한숨이 들리는 듯했다.

여행 중 *안사무엘 목사님을 만났다. 목사님께서 호숫가에서 고기를 구워 주시며 '먹으라' 하신다. 수십 킬로의 등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물보라를 맞으며 놀아 주셨다. 이 얼마만인가? 이렇게 웃는 것이... 감동으로 가슴이 먹먹한데 자신을 '샘 오빠'라 부르라 하신다. 반백이 다 된 머리에 여전히 웃음으로 그렇게 서서 '네비 언니는 나의 인도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변함없는 유머로 허리를 꺾어지게 한 그 눈빛 속에, 머물던 자리에의 그리움이 살짝 지나간다.

신영숙 권사(1-12)

*안사무엘목사 : 2000년까지 주님의교회 부목사로 섬겼으며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 다드림교회 담임을 맡고 있다.



청년부
소식

청년공동체 국내전도여행



주님의교회 청년공동체에서는 이번 2007년 7월25일부터 28일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으로 시편 126편 6장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50여명의 청년이 함께 국내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지역은 불교와 "SGI한국불교회"라는 일본에서 건너온 불교가 성행하는 지역으로 복음의 진리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기에 저희는 "봉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더 강하게 초점을 맞추어 석포 1,2리 800~900여명의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주 사역으로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노방 전도에 힘썼고, 독거노인 분들과 노인정에 방문해 출발 전부터 열심히 배우고 익혀왔던 발 마사지에서부터 부엌과 바닥 청소까지 필요로 하시는 일들을 도왔으며, 김치와 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린이 영어성경캠프를 개최하여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까지 70여명의 아이들이 참여하여 2박 3일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마을 잔치를 열어 지역 어르신 분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저희들과 영어성경캠프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장기자랑을 펼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전도 여행에서는 우리가 그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다는 마음이짐으로 섬김과 전도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 그리고 서로를 통해 큰 사랑을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진윤미(청년부)

도서실세미나

지난 9월 6(목)일에 도서 사역팀 20여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도서실에 모여 세미나에 참여했다.

먼저 봉사자들의 소개가 있은 후 2007년도 상반기도서실 운영 상황설명이 이어졌다. 회의 안건으로 도서실 운영위원회 구성 문제와 장기연체도서처리문제를 상정하고 추후 시간을 내어 토의하기로 했다.

세미나는 포스비브테크의 이태경부장이 맡았다. 그는 도서실 봉사자 가장 기본지식이 되는 "책꽂이 프로그램"을 파워포인트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

다. 봉사자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을 질문도하고 직접 컴퓨터로 실행해 보느라 마침시간이 예정시간보다 늦어졌다. 하지만 참석한 모두가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반응이었다. 강의 후에는 지하식당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요즘 도서실에 변화가 많이 일고 있다. 우선 벽쪽 서가가 2단 높아져서 서고를 확보함은 물론 중후한 분위기까지 풍긴다. 잡지꽂이가 비치되었고, 좌식열람석을 책상으로 바꾸었다. 지난 상반기에 회원수가 200명 증가



했고, 548권의 새로운 책이 입고되었다. 회원수와 도서량이 계속 증가 추세이어서,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도서관학과나 전산과를 졸업한 신분은 대환영이다.

최정숙 집사(5-4)

※문의 :최정숙팀장 016-470-0806

미술선교회 정기모임

11월 추수감사절 전시회 계획



미술선교회 후반기 모임이 지난 9월 16일에 있었다. 이 번 모임에는 새로운 신입 회원 4명이 참석했다. 미술선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풍성해 지는 느낌이다.

안건은 2학기 청음 회관의 수업 내용과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 전시회였다. 모든 분들이 기꺼이 작품을 내주시겠다고 약속했다. 한가위의 풍성함만큼이나 풍성해지는 미술선교회를 경험하게 되었다. 모인 회원들은 작은 마음들이 하나 되어 주님께 기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기기를 소망했다.

동경숙집사(5-12)

중보기도 전체모임

“소중한 한 사람의 중보기도”

담임목사님이 공석이였기 때문이었는지 허전하고 힘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8월을 지냈다. 하지만 박원호 담임목사님과 함께 한 9월의 첫모임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서 모임의 열기가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담임목사님은 시편55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함을 얻고 주를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전했다. 또한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가를 강조하며 중보기도팀이 주님의교회에 있다는 것이 힘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 중보기도팀 담당할 목사님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종으로 보내주시길 믿고 기도하며 반가운 얼굴들과 교제를 나누었다.

송용미 집사(4-9)

군선교사역팀 사역보고

15사단 신병교육대 192명의 진중세례식 거행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군(軍)에 큰 소망과 비전을 두고 계신 것 같다. 군 복음화는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이라는 기독교 선교적 측면에서나 “신앙 전력화”라는 군의 정신 전력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이요 선물이기 때문이다.

주님의교회 군선교부(팀장: 윤의탁 안수집사)는 강원도 화천군에 소재한 15사단의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을 계속 후원하고 있다. 올 해는 그 첫 번째로 지난 9월 15일(토) 15사단 신병교육대 내 “여호와 닮은교회”에서 400여명의 장병

들과 진중 세례 예배를 드렸다. 192명의 세례 받을 장병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고자 준비된 마음으로 정열해 있었다. 기쁜소리찬양 선교단의 인도로 시작된 찬양은 메마르고 갈급한 영혼을 축축이 적셨다. 열정적이며 강한 힘으로 주님의 영적군사

들과의 찬양 호흡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말씀을 전한 윤은성 목사는 행13:36의 말씀으로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분을 닮는 삶임”을 증언했다. 192명의 장병들에게 세례식이 거행되었는데, 서있는 그들의 모습이 주님의 만민의 군대임을 증명하고도 남을 뿌듯한 모습이었다. 30여분 동안 진행된 세례를 마치고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표시하는 십자가를 목걸이를 선물했다. 비로

소 이들은 은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21C의 한국 군 선교 복음화는 결코 밝은 전망을 예견할 수 없고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다. 군 종장교를 파송치 못한 군소 종교단체들의 폐지 주장, 원불교의 활발한 군 종교활동, 군복무족, 기성교회들의 관심과 재정지원 부족 등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군 생활에 임하며 젊은 날에 주님을 영접한 이들이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써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땅에 군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황금어장이며 진중세례를 통해 매년 25만명의 젊은 그리스도인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 장병들은 제대 후 민간교회의 성도로 거듭나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갈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다. 이들이 이 땅에 민족을 살리고 인류 복음화를 위해 주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 본다.

홍의운집사(8-11)